

정보검색을 다시 생각하며



곽철완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위원장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ckwak@kangnam.ac.kr

도서관 현장이나 문헌정보학계에서 정보검색은 한동안 상당히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대학에서는 정보 검색과 관련된 과목이 여러 강좌 개설되기도 했고, 도서관에서는 정보서비스의 핵심 영역으로 활발하게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도서관이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정보검색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 컴퓨터나 IT 발달이 정보검색의 발전을 이끌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IT와 인터넷 발달이 도서관계에서 정보검색을 소홀히 여기게 만들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사회 곳곳에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던 초기에는 도서관과 컴퓨터는 좋은 친구관계였다. 도서관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위한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였다. 이때만 하더라도 정보검색은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의 핵심분야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IT의 발달은 인간의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발전되었고, 인터넷과 웹의 확산은 검색엔진과 검색포털사이트의 발달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인 누구나 정보검색의 전문가로 생각하게 만들었고, 스스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의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도서관을 통해서 정보를 찾는 사람의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도서관인들조차 정보검색에는 정보생산자와 최종이용자만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도서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용자에게 소장자료 검색을 위해 자료를 분류하거나 목록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동시에 색인, 서지, 목록, 명감 등의 다양한 참고정보원을 구비하여 이용자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형태나 내용에 따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고도구를 사용하는 기술들은 도서관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고 기술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도서관 경향을 보면 이러한 전문적인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오늘날 정보검색의 중심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세계적인 검색사이트인 구글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적극적인 검색방법으로 탐색창에 자연어를 입력하여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정보탐색'이며, 다른 하나는 수동적 검색방법으로 과거에는 '디렉토리 탐색'이라 이야기하였던 '브라우저'이다. 우리나라의 이용자들은 브라우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포털사이트의 초기화면에 나타난 여러 종류의 정보를 보면서 상세한 정보를 원하면 그곳을 클릭하면 된다. 최근에 '네이버'에서는 정보형태에 따라 구분한 디렉토리를 화면 왼쪽에 크게 배치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도서관에서 정보검색은 어떻게? 우리나라 이용자들은 정보탐색 보다는 브라우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이 정보검색을 하면서 도서관을 적극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브라우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이용자들은 브라우저에 익숙해 있는데, 도서관의 온라인 목록이나 홈페이지는 정보탐색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제공하는 정보도 제한적이라면, 이용자는 당연히 외면하게 될 것이다. 오프라인의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는 서가의 브라우저를 통해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서, 온라인에서는 브라우저 기능 제공에 소극적이라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서관을 정보소장 공간이 아닌 정보접근 공간으로 부른다. 도서관이 정보검색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효과적인 브라우저를 위해 정보조직과 이용자의 범주화와 인식에 관심을 가지며, 브라우저 행태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